



연중 제22주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2020. 08. 30. (가해) 제2230호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마태 16,24)



‘십자가를 지고 계신 예수’, 엘 그레코, 1590-1595,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립 카탈루냐 미술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 하느님의 일과 사람의 일



산자연중학교장 | 이영동 치릴로 신부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으뜸 제자인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께 충격적인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도 나름 스승이신 예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인정도 받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의 생각으로는 백성들에게 인기가 아주 많은 예수님께서서 수난을 받거나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느님의 일’을 다 이루기 위해서라도 그분의 능력과 인기를 활용해서 왕좌를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한 인간적인 반응인데도,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 장애물, 걸림돌’이라는 지독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의 일’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진리의 이름’으로, ‘평화의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의 이름’으로, ‘자연의 이름’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옳은 일을 한다지만, 그곳에 ‘하느님의 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과 테러, 인간과 자연에 대한 착취, 자기편이 아닌 것들에 대한 경멸, 이러한 일들을 저지르면서도 어찌나 당당한지. ‘인간의 지혜로 얼마나 위대한 세계를 만들어 놓았는가?’라고 오히려 항변하는 듯합니다. 그러면서도 진짜 ‘하느님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지구가 죽어갑니다!’라고 외쳐도 무슨 신

통한 대안이라도 있는 것처럼 무감각합니다. ‘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시는데도, 자기 십자가는 버리고 자기 영광만, 이익만 좇아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의 메시지를 그 몸에 지니고 사는 피조물입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뺏속에 가두어 둔 주님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 내지 못하겠습니다.”라는 예레미야 예언자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 뺏속에서부터 꿈틀거리는 창조주 하느님의 음성을 잘 새겨들읍시다. 그래야 ‘하느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탄, 장애물’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 자신이 변화되게 합시다. 그리하여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합시다.’ ‘피조물의 일은 창조주의 일’을 생각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완성되어 갑니다. 창조주의 모습을 닮은 피조물이 누구를 따라가야 하겠습니까?

소리치고 있습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의 일’이 아니라 창조주 ‘하느님의 일’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 뺏속에 새겨진 하느님의 말씀이, 외면당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멸종 위기의 생물들이, 기후변화가, 모든 생태계가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의 일’을 더 생각하라고. **필문**

## 이 땅의 농부 - 일용할 양식을 가꾸는 하느님의 파수꾼

교구 생태환경위원 · 동촌본당 | 류진춘 이시도르


범세계적인 코로나19 광풍에 농식품·식자재 유통-소비체계가 무너지면서 학교급식 중단으로 애써 가꾼 농작물을 밭에 썩혀 버렸고, 과수화상병으로 과수원 나무들을 통째로 땅에 묻었다는 『2020년 농가 눈물보 고서』는 농민들의 아픈 가슴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구 차원에서 처음으로 조환길 대주교님과 장신호 보좌주교님, 교구 생태환경위원장과 사제 여러분이 지난 삼복더위 중에 농촌지역에서 농민 주일 기념미사를 봉헌하였다. 교구장께서는 영천 자천 공소 관내 질구지마을에서 과수원 축복식을 거행하신 후, “농부는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생태계를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셨다. 장 주교님도 군위 부계공소 관내 가호1리에서 농장 축복식을 거행하시고 공소 농민 교우들을 격려하셨다.

천주교주교회의의 생태환경위원장 강우일 주교님은 『생명농업, 지구와 인류의 희망입니다』라는 제25회 농민 주일 담화문을 통하여 코로나19라는 “미세한 바이러스에 인간이 무력하게 무릎을 꿇는” 기후 생태위기의 결과 인류가 위기에 처하였다고 하시면서 “모든 생명이 조화롭게 사는 세상이라야 인간도 생존을 이어갈 수 있다.”고 언급하시며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을 통하여 농촌과 도시가 함께하는 생명공동체운동을 활성화하고자 강조하셨다. 우리농촌살리기운동은 90년대 초 세계 교역 질서 변화로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이 타결된 후 FTA 협상을 통해 쌀과 농산물시장이 개방되면서 한국농업이 크게 위축되었고 이로 인해 농민들이 위기에 몰린 상황 속에서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전국 가톨릭 농민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져 공식화되었다.

당시 주교회의의 의장이셨던 이문희 대주교님께서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1994년)하고 농민 주일을 설정(1995년), 1996년부터 시행하였다. 대구대교구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도 초창기 성주, 고령 등 5대리구를 중심으로 생산자 농민과의 친환경 농산물과 『우리농』제품의 공급은 물론 타 교구와의 물류협력과 도-농 연대 활동도 활발하였으나 그 후 맥이 끊겼다.

우리 교구는 금년 들어 생태환경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각 본당에서도 순차적으로 활동단체를 구성해 나가는 가운데 주교님들께서 농민 주일 기념미사를 봉헌하는 등 도-농이 함께하는 생명공동체운동을 위한 우리농촌살리기운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활성화 의지를 강하게 느낄 수 있었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생태적 회심을 요청하는 한국 주교단의 성명과 맥을 같이하며,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통하여 생태위기에 응답해 줄 것을 호소한 교황님의 말씀에 동참하는 것이기도 하다.

생태위기 현장에서 생명농업을 지키기 위하여 땀 흘리는 농민 교우들과 같이 농민 주일 미사에 동참하면서 도-농이 함께 손잡고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일이 절실함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jcryu@knu.ac.kr) 

## 교황, “하느님 은총을 바라보는 올바른 눈이 필요합니다”

2020년 8월 17일 바티칸 뉴스 | 번역 이재협 신부

축성생활에 있어 어디를 바라보는지의 문제는 중요하다. 수도자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하느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고유한 사명을 살아갈 수도 있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 수도 있다. (이러한 선택에 있어) 고유한 사명에서 스스로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치료약은 언제나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브라질 수도자 연합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브라질 수도자 연합회는 8월 16~22일 ‘축성생활자를 위한 기도 주간’을 진행하고 있다.

### 기쁨으로 부르심

교황의 지지는 사실 지난 8월 9일 주일 삼중기도 후 성 베드로 광장의 한 그룹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십시오!”라는 축복의 말로 전해진 바 있다. 이는 모든 수도자들을 향한 교황의 격려였다. 교황은 (주일 삼중기도에 참여했던) 로마에서 일하는 수천 명의 수녀들과 브라질의 많은 수도회 대표단에게 서한을 보내 삶의 진정성을 권고했다. “부르심의 여정은 하느님에게서 사랑받고 있다는 체험을 근원으로 합니다. 이 부르심은 기쁨으로의 초대입니다. 이 기쁨은 오직 다른 이를 향해 스스로 선물이 될 때 발견됩니다.”

### 섬기는 삶

“시대의 변화를 겪는 오늘날 사회는 많은 도전을 마주합니다. 우리(수도자)는 이 도전 앞에서 세속적 시각을 가지려는 유혹을 피하기 위한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세속적 시각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 은총을 바라보기를 방해하고, 하느님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찾으려 우리를 이끕니다. 이러한 유혹을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치료제는 우리의 모든 활동에서 기도를 우선순위에 두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사람은 섬기는 삶을 배웁니다.”

### 하느님의 마음으로

교황은 주저하지 말고 다음과 같이 자문해보라고 권고했다. “저는 지난 2014년 축성생활자들에게 보낸 교서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서원했을 때 다짐한 대로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사랑이며 유일한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이 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진리와 자비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사랑이 무엇이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지니기에 사랑할 줄 알게 될 것입니다.”



## 박취득 라우렌시오 (1769?~1799년)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난 박취득(朴取得) 라우렌시오는 고향 인근에 전파된 천주교 신앙에 대해 듣고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이후 그는 한양으로 올라가 지황 사바에게 교리를 배워 입교하였으며, 고향으로 돌아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족과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하였다.

1791년 신해박해 때 라우렌시오는 고향의 여러 교우들이 체포되어 옥에 갇히자, “무죄한 사람들을 사납게 매질하고 여러 달 동안 옥에 가둔다는 것은 무서운 죄가 아닙니까?”라고 관장 앞에서 항의하다가 체포되었다.

이후 그는 해미와 홍주 관아로 이송되어 잔인한 형벌을 당하였다. 다행히 옥에 갇힌 지 한 달 남짓 되었을 때, 조정의 명령에 따라 석방되었다. 이때부터 라우렌시오는 원시보 야고보, 방 프란치스코 등과 교류하면서 교리를 실천하고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 데 열중하였다. 그러던 중 1797년의 정사박해가 일어나자 그에게 체포령이 내려지게 되었고 수차례에 걸친 문초와 형벌을 받고 옥에서 여러 달을 지내다가 홍주로 압송되었다.

홍주에서도 라우렌시오는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변을 하였고 갖가지 형벌을 인내로 참아냈다. 그러자 홍주 영장은 화가 나서 ‘다리를 부러뜨리고, 죽도록 매를 치라’고 한 뒤 옥에 가두었다. 이 사실을 감사에게 보고하자 감사는 ‘그놈의 다리를 치되, 열네 번을 때려도 행복하지 않거든 아주 죽여 버리도록 하라’는 명령을 내려보냈다. 라우렌시오는 여러 달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주 끌려나가 형벌을 받았는데 옷이 벗겨진 채로 진흙 구덩이에 갇혀 밤새 추위와 비바람으로 고통을 받은 적도 있었다. 바로 이 무렵에 그가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옥에 갇힌 지 두 달쯤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천주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결에 ‘십자가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이 발현은 약간 희미하기는 하였지만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라우렌시오는 모두 1천 4백 대 이상이나 맞았고, 8일 동안 물 한 방울을 마시지 못한 적도 있었다. 옥졸들은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옷을 벗긴 뒤 밖에 내던져 버렸다. 그러나 그는 죽지 않았고 다시 옥으로 끌려 들어가자, “나는 굶겨도 죽지 않고 맞아도 죽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목을 매면 죽을 것이요.”라고 옥졸에게 말하였다. 실제로 이튿날 밤에 교우들이 그에게 다가가서 보니 모든 상처들이 기적적으로 나아서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제서야 이를 요술이라고 생각한 옥졸이 새끼줄로 그의 목을 졸라 죽였으니, 이때가 1799년 4월 3일(음력 2월 29일)로, 당시 그의 나이는 약 30세였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2020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담화

#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우일 주교의 피조물 보호를 위한 담화문은 교구 홈페이지에서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예레 20,7-9	제 2 독 서	로마 12,1-2	복 음	마태 16,21-27.
화 답 송	◎ 주님, 저의 하느님, 제 영혼 당신을 목말라하나이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어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주님,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교구장 동정

8. 26(수) | 여성교육관 갤러리 축복식



총대리 동정

8. 23(일) | 평화를 위한 오솔길 파견 미사

## 신천지 및 유사 종교(사이비) 침투를 조심합시다!

신천지 및 각 유사종교는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신자로 위장합니다. 포섭 활동을 유도하면 신천지 및 유사종교 신자로 의심하고 본당 신부님, 수녀님에게 알려야 합니다.

신천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다음의 QR코드를 통하면 교구청 홈페이지의 “주의! 유사종교” 칼럼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박성규 엘리지오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대상: 해외선교사제를 꿈꾸는 청년  
문의: 성소국장, (010)8715-2846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9.6(일) 9:3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대상: (만) 19세~35세  
문의: (010)9937-0901

**산내 치유 피정(정원 10명)**

일시: 9.15(화) 14:00~16(수) 18:00  
장소: 효령하늘집 / 피정비: 4만원  
문의: 이곡성당, (054)382-0091

**교육 | 모집 | 기타**

**SPC에니어그램 1단계 교육 개강**

일시: 9.10(목) 10:00~12:00  
교육기간: 총 8주 16시간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원  
내용: 에니어그램을 활용한 영적여정  
문의: 254-2664 / (010)3228-3330

**꽃동네대학교 2021학년도 수시 모집**

가톨릭 보건·복지·상담심리 특성화 대학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원서접수: 9.23(수)~28(월)  
모집: 사회복지, 상담심리, 간호학과  
문의: (043)270-0100

**가톨릭상지대 2021학년도 수시1차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1차: 9.23(수)~10.13(화)  
문의: 교무입학처, (054)851-3021~3  
http://ipsi.csj.ac.kr

**성기양로원(무료양로원) 어르신 모집**

위치: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한티 가는 길  
내용: 매일미사와 공동기도, 산책로  
대상: 65세 이상 일상생활 가능하신  
기초생활수급자(남자 어르신도 가능)  
문의: (054)974-8122 / (010)6485-7796

“뿌리 깊고 샘이 깊은 교육의 전당”

# 대구가톨릭대학교

- 정부지원사업비 연간 254억원
-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선정
-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5개학과 신설
  - 외국어자율전공학부
  - 인공지능로봇공학전공
  - 글로벌항공서비스학과
  - 예술치료학과
  -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 영남지역 대형 대학 중 취업률 1위  
2019.12. 한국개발연구원(KDI) 발표  
(대형 대학 : 재학생 1만명 이상)

입학 홈페이지 : [www.ibsi.cu.ac.kr](http://www.ibsi.cu.ac.kr)      학교 홈페이지 : [www.cu.ac.kr](http://www.cu.ac.kr)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홍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http://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10방향 200m

**칠곡속내과**  
CHIL-GOK SOK INTERNAL MEDICINE

위·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  
만성질환클리닉, 성인예방접종

원장 이정수(요한) T. 053)327-0300  
대구 3호선 팔거역 4번 출구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황반변성

대표원장/의림박사 (현 연세대 외과교수) **박종원** (소시모)  
안과전문의 **장주현** (비비안나)·**이무일**  
효성병원 옆 대동M타워 4,5,6층  
☎ 053)626-8881~5

**박영우 정신건강의학과**  
우울증/불안증/불면증  
스트레스성 신체질환

원장 박영우(스페파노) 파티마병원 신경정신과 과장 역임  
신경정신과전문의/의학박사 대한수면학회 회장/이사장 역임  
대한생물리치료학회 회장 역임

파티마병원-평화시장 사이  
(공전라벤더 맞은편)  
☎ 053)942-8822

**SM 수맥홍집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 1588-5335

**헤 렌 디자인하우스**

프리미엄 디자인가구

박성웅(알벨도) 대구시 북구 엑스코로 10  
권나경(수산나) (엑스코 가구를 지하2층)  
Cell : 010 7766 3198

**장수효요양병원**

병원장 김 경 열 시문

입원 대상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치매, 신경계질환  
노인성질환, 말기암 환자, 욕창, 수술 후 회복  
장기적인 치료 요양

입원 시 필요서류  
진료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 처방 전 결과검사지  
(기초수급자 : 의료급여의뢰서)  
☎ 053)285-1100, 1101, 1103

암·재활·소화기·통증·건강검진

**Happy! 3인방병원**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진료합니다  
대구가톨릭대병원 입구 **대평리** ☎ 053)670-6000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최영수(요한) 대주교  
2009년 8월 31일
- 김문옥(요셉) 신부  
1941년 9월 1일
- 이명우(야고보) 몬시뇰  
1984년 9월 1일
- 박상태(루도비코) 신부  
2004년 9월 3일
- 김규태(디모테오) 신부  
2004년 9월 3일
- 장태식(리노) 신부  
2012년 9월 3일

**대구가톨릭평화방송 신앙특강**  
방송시간: 금, 토 14:00~15:00  
강사: 9월\_여한준(롯데로) 신부  
문의: 대구가톨릭평화방송, 251-2630

**대구가톨릭음악원 제32기 모집**  
개강: 9.5(토) 10:00  
문의: 교구 음악원, 255-4847

**앞산밀북카페 상영 영화**  
첫째주: 칸 영화제 수상작 10선  
둘째주: 인도 영화 10선  
셋째주: BBC 선정 100대 영화  
넷째주: 스포츠 영화 10선  
일시: 매주 월 14:00 / 문의: 622-1900

**CLC '예수님께 인생을 묻다' 영성 강좌**  
일시: 10.7~11.11 매주 수 19:00~21:00  
장소: 교구청 교육원 나동 4층  
주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사랑의 힘, 사랑의 질서와 영적 훈련  
수강료: 8만원 / 문의: (010)8441-8011

**생활성가밴드 DEUS 멤버 모집**  
함께 활동할 열정 있는 멤버를 모집합니다.  
부문: 드럼, 키보드  
문의: (010)9211-8966

**채용 | 안내**  
**갈밭성당 건립과 50년의 기도**  
정성껏 만든 영상입니다.  
검색 꼭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검색어: 갈밭성당  
문의: (010)6835-9594

**청도성모솔숲마을 자연치유센터 오픈**  
대상: 자연 속에서 휴양이 필요하신 분  
(암 환자 환영)  
문의: (054)373-3955 / (010)5225-4538

**제30회 한국 가톨릭 매스컴대상 공모**  
부분: 신문, 출판 / 영화, TV / 라디오, 인터넷  
시상: 대상 500만원, 부문상, 특별상 300만원  
마감: 10.31(토) / www.cbck.or.kr  
주최: 주교회의 사회홍보위원회

**한국평협 가정 선교 체험 공모전**  
일시: 8.31(월)~9.29(화)  
주제: 가족 간 선교를 통해 하느님 사랑을 체험한 후기  
접수: 메일 또는 우편 접수  
http://www.clak.or.kr

**2020년 교구장기 대회 취소**  
10월 9일(금)로 예정되어 있던 교구장기 테니스대회와 배드민턴 대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었습니다.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7

**김수환 추기경 뮤지컬 연기**  
8월 23일자 4면에 게재된 김수환 추기경 뮤지컬 '밤처럼 옹기처럼'은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육 | 모집 | 기타**

**2020년 2학기 신학성경과정 수강생 모집**  
성경입문, 신약성경과정, 구약성경과정, 신학입문, 신론, 철학, 마리아론, 동양고전, 그리스도교와 불교, 철학과 그리스도교 등  
개강: 9.1(화)  
문의: 가톨릭신학원, 660-5105

**대구SOS어린이마을 공부방 교사 모집**  
자격: 교직 정년 퇴임자  
업무: 월~금 16:00~19:00  
마감: 9.8(화) 18:00  
문의: 983-3154

**기백한의원**  
허리, 어깨, 손발저림  
교대역 3번 출구 옆 원장 박기범(유스티노)  
☎ 053)471-3733

**건어를 호성상회**  
(서문시장 내 주차빌딩 맞은 편)  
김, 멸치, 산모용 미역, 안주, 반찬류  
배호성(헨리코), 박필교(올리나나)  
배대욱(임마누엘)  
☎ (053)255-9077  
010-9447-5193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추게 하라!**  
**더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관철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보건복지부 지정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죽전네거리 서문시장 맞은편  
**T. 555-5520**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치질수술 / 내시경(위·대장) / 건강검진  
**딱! 좋은 병원**  
늘시원한 위대행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 내정영은 세브라 전문의 노성준 아우구스티노  
하마의사의 건강벨트  
www.hangmuns.com 대구 북구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T.053-959-7175 F.053-959-7577 P.010-9597-7175

**곽재혁신경과**  
DR. KWAK'S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前 대구가톨릭대병원 조교수  
053-255-2211  
신남역(청리안덕역) 9번 출구 적담병원 4층

**이데오피스.문구**  
Canon 흑백복사기 60,000원/월  
Canon 컬러복사기 90,000원/월  
복사용지·문구류 무료배송  
흑백복사기(A3) 중고 기증 가능  
053)756-0949 대표 황현진(필립보)

포장이사, 일반이사, 사무실이사, 보관이사  
**유림익스프레스**  
허만철(바오로)  
하중순(요안나)  
H.P 010-7659-8777  
053)783-2456, 653-2456